

# 5월 광학신기술품질인증사업

## 아이비케어(주), 중배울 망원경(비축 비구면 반사굴절미러 방식)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에서는 광학업체들의 R&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학 신기술 품질 인증사업'(이하 품질인증사업)를 실시하고 있다. 품질인증사업은 광학업체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문위원회가 성능, 안전성, 신뢰성 등 엄격한 품질기준으로 평가해 광학업체들의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비케어(주)는 지난 2010년 창업하여 현재까지 고성능 고글 제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헬스케어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눈 운동기기', '냉·온열 마사지 제품' 등을 개발했으며 기존 중국제 품에 비해 콤팩트하고 착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창업 초기부터 개발한 '눈 운동기기'는 눈 주위 마사지, 멀리보기, 눈 스트레칭 등 복합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지금까지 수 만대가 팔린 스테디셀러이며, 2016년 론칭한 '냉·온열 마사지 제품'은 세계 최초로 냉열 기능이 구현되는 기능으로 최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본격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올해 개발이 완료된 '공연·스포츠 관람용 안경타입 망원경'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로부터 광학신기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경타입 중배울 망원경인 일명 '줌글라스(영문명 Zoom Glasses)'이다. 위 제품은 기존 망원경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용성을 극대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망원경을 두 손을 잡고 사용했던 불편함을 경량화와 소형화를 통해 해결했다.

과거 일본과 미국에서 단순한 형태의 안경타입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있었으나 무거운 무게와 높은 부품가격, 광학계의 긴 길이로 대중성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안경타입의 망원경은 대중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화질의 이미지와 낮은 공급 가격은 기본이고 디자인적으로 광학계의 길이가 짧고 가볍지 않으면 안 된다. 안경처럼 장시간 착용해야 하므로 기존 방식으로는 착용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므로 프리즘을 쓰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광학계가 필수적이다. 아이비케어가 개발한 '줌글라스(중배울 망원경)'은 '비축 비구면 반사굴절 미러' 기술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원리를 응용, 기존 망원경과 반대로 렌즈를 통해 피사체를 왜곡 없이 멀리 보이게 만들어 눈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으로 사용된 '눈운동

기기' 원리에서 착안한 것이다.

아이비케어(주) 권창민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한 줌글라스의 경우 일명 '아이비케어 방식'을 적용하였다"며 "일반인들은 물론 광학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쉽게 와 닿지 않은 방식인데 특히 중배울(특히 4배울과 7배울 사이)을 의미, 통상 쌍안경의 기본 배율이라고 칭함) 망원경이 어떻게 프리즘 없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진 이가 많다"고 한다.

'줌글라스'는 현재 온도와 충격, 진동 등 신뢰성까지 검증을 완료하였고 판매가 가능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100여대 제작하여 필드 테스트와 영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필드 테스트로 축구장, 야구장, 대형 오페라 공연장 등에서 실제 착용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럽과 미국, 일본 관련 업체에 샘플을 보급해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다. 아이비케어(주)는 초기 제품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권 대표는 "자료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 잠재적 시장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국내에서는 공연, 스포츠 관람을 월 2회 이상 하는 마니아 숫자만 해도 150만명에 이르며, 해외는 국내 시장의 100배가 넘는 1억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된다"고 전했다.

아이비케어(주)는 '줌글라스' 시판을 앞두고 공연장, 스포츠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소비자의 니즈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매가격을 10만원 초반대로 결정하였다. 또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초기 마케팅 단계인 임대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국내 8,500개 점포가 있는 안경점에도 입점을 적극 추진, 도심 오프라인 상권에서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좁혀갈 계획이며 동시에 지난 2015년 '국방벤처아이디어 경진대회' 금상 수상을 앞세워 군수 사업에도 적극 진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창민 대표이사



일체형 블랙



제품 착용 사진